

지구촌 양계뉴스

북한 AI 방역 항구적 사업으로 추진



북한이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을 위해 방역사업을 ‘항구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3월 25일 소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국가비상방역위원회가 조직된 후 AI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이는 ‘전 국가적, 전 군중적인 사업’으로 방역사업을 벌였기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AI 예방을 위해 겨울 철새들의 이동경로가 밀집돼 있는 지역들에 조사구역을 선정해 새들의 종류와 이동경로, 서식지 등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국가과학원 세포유전자공학분원은 유전자 분석방법으로 AI바이러스의 아형(亞形)을 즉시 판단할 수 있는 신속감별법을 찾았고, 농업과학원 수의학연구소의 AI 신속 진단기술 개발에서도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북한은 또 AI를 막기 위한 위생방역 사업

을 그 어느 때보다도 강화하고 있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AI에 대한 홍보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에 대한 검사를 빠짐없이 진행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또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의 주민들에 대해선 감기 역학감시 지점을 정해 매일 파악하고, 가금업 부문 근로자와 철새 이동지역 주민, 동물원 종업원에 대해 AI 검사를 따로 진행, 의학적 감시를 특별히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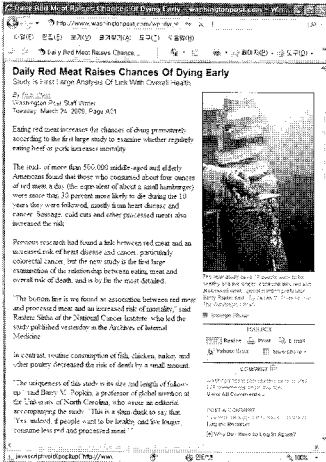
한편 북한은 AI 예방사업을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긴밀한 협조 하에 적극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통신은 강조했다.

- 연합뉴스

미국 닭·터키 등 가금류, 사망위험성 낮춰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 적색육을 많이 먹으면 일찍 사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미 국립암연구소(NCI)는 지난 1995년부터 10년간 매일 육류 4온스(작은 햄버거 크기)를 섭취하는 미국 중장년층 50만명을 상대로 조사를 실시해 적색육 섭취자가 그렇지 않은 사



람보다 심장병과 암 등으로 인해 사망할 확률이 30% 더 높다고 보고했다. 소시지와 냉동육, 가공육 등도 사망위험률을 높이는 음식물로 분류됐다.

져 처음으로 연구가 이뤄진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NCI 라시미 신하 박사는 “적색육·가공육 섭취와 사망위험간 상관관계를 찾아냈다는 게 우리가 한 일”이라고 말했다. 조사결과는 의학전문지 ‘내과학 기록’(the Archives of Internal Medicine)에 실렸다.

신하 박사는 “돼지고기가 가끔 백색육으로 홍보되고 있지만 철분 함유량때문에 암발병률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위험성을 지적했다.

반면에 생선과 닭·터키 등 가금류를 규칙적으로 먹을 경우 사망할 위험이 미세하나마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 세계일보

연구진은 50~71세 백인 54만5,653명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한 뒤 지난 1995년부터 이들의 식이요법과 육류섭취 등에 대해 추적했다. 이후 10년간 남성 4만7,976명과 여성 2만3,276명이 사망했다.

연구진은 흡연과 체력 등 여러 사망원인을 조사했지만 하루에 4분의 1파운드에 달하는 적색육 섭취가 가장 주요한 사망원인인 것으로 밝혀냈다.

적색육을 많이 먹는 여성들 중에서는 36%가 어떠한 이유로든 사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 20%는 암으로, 50%는 심장병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적색육을 많이 먹는 남성은 31%가 사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암발병률이 22%였으며 심장병 발병률은 27%에 달했다.

이전 조사는 적색육과 심장병 및 암의 발병연관성에 대한 것이었지만, 이번 조사는 적색육 섭취와 사망위험성에 대해 초점이 맞춰

▶ 닭고기 섭취, 노인성황반변성 질환 발병률 낮춰

붉은색을 띠는 육류를 많이 먹는 사람에서 노인성황반변성이라는 노년층에서 실명을 유발하는 가장 흔한 원인질환이 발병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멜버른대학 연구팀이 지난 3월 21일 ‘미역학 저널’에 밝힌 58~69세 연령의 6,734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주 5회 이하 붉은 육류를 섭취하는 사람에 비해 10번 이상 먹는 사람들이 노인성황반변성이 발병할 위험이 50%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년에 걸쳐 진행한 이번 연구에서 1,680명과



77명에서 각각 조기 노인성황반변성과 말기 황반변성이 발병했지만, 주당 최소 3번 닭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이 같은 질환이 발병할 위험이 50% 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붉은 육류를 더 많이 섭취하면 할수록 노인성황반변성이 발병할 위험이 높아지게 된다”라고 밝히며 “식습관을 바꾸는 것이 노년층에서 노인성황반변성이 발병할 위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 메디컬투데이

지원을 받는 미국 제품이 싼값에 수입됨으로써 피해를 보고 있다며 작년 4월 집행위에 조치를 요구했었다.

- hankyung.com



유럽연합(EU)

미국산 바이오디젤에 반덤핑관세 부과

유럽연합(EU)은 미국산 바이오디젤에 대해 반덤핑관세 및 보조금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3월 12일 관보를 통해 미국산 바이오디젤에 대해 업체에 따라 최고 29%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29~41%의 보조금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미국산 바이오디젤에 대한 반덤핑관세와 보조금 상계관세는 3월 13일부터 잠정적으로 부과되며 EU 집행위는 6개월 이내에 ‘확정관세’ 판정을 내리고 27개 회원국 통상장관 회의의 승인을 얻으면 5년간 징벌적 관세를 유지하게 된다.

EU 역내 바이오디젤 생산업체들은 보조금



중국

미국과 닭·오리 무역전쟁 조짐

중국은 지난 3월 11일 미국이 중국산 닭과 오리 등 가금류 가공제품의 수입 불허 조치를 연장한데 반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중국 내부에서 미국산 가금류 수입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터져나와 양국간에 가금류 무역전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중국 상무부 야오젠 대변인은 웹사이트에 올린 성명에서 미국의 이번 조치는 “분명히 불공정하고 악의적”이라고 비난하고 “중국은 WTO에 제소할 것이며 추가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대변인은 중국의 가금류 가공산업은 국제적인 안전과 품질 관리 규정을 지키고 있다면서 미국이 기술적으로나 식품안전상으로 수입을 금지할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미국 농무부는 지난 2006년 중국산 가금류 수입을 허용키로 했으나 의회에서 2008회계연도의 세출법안에 검역을 막는 규정을 삽입

해 제동이 걸렸다. 이어 이 규정은 2009회계 연도 세출법안에도 존속됐으며 지난 3월 11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받았다.

미하원 농업 세출소위의 로자 디라우로 위원장은 “AI(조류인플루엔자)와 생산시설의 취약한 위생 상태 때문에 중국산 가금류 가공 제품은 공공 보건의 위험 요인이 된다”며 수입제한 조치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국회) 대표인 사이페이아그룹의 리빙 회장은 이번 조치는 심각한 보호주의라며 미국산 가금류 수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여론을 의식한 듯 미국 가금류·계란 수출협회는 의회가 수입 제한 조치를 폐지하지 않는데 실망을 표시하면서 중국의 제소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산 가금류는 중국이 수입하는 가금류 시장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 hankyung.com

기름 오염된 땅엔 닭동이 최고

중국 우한대의 마후이웬 등은 국제학술지 ‘환경과 공해’ 최근호에 실린 논문에서 닭동이 원유의 뛰어난 생물분해제 구실을 한다고 밝혔다.

닭의 배설물 속에는 유기물을 분해하는 미생물과 그 세균의 먹이인 영양분이 풍부해 기름 분해를 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연구진은 닭동 속에는 21종의 박테리아가

있는데, 이 가운데 12종이 원유를 분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고했다. 일반적으로 기름유출로 인해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려면 계면활성제를 투입해 기름을 닦아내지만, 이 세제성분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된다.

또 더 환경친화적 방법으로 기름분해 미생물을 주입하기도 하지만, 이때에도 미생물의 먹이로 질소와 인을 함께 주어야 하기 때문에 비싸기도 하려니와 토양이 굳어지고 비옥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마 교수팀은 10%의 기름으로 오염된 토양에 미생물과 양분을 구비한 닭똥을 주었더니 2주일 만에 원유의 75%를 제거해, 닭똥을 주지 않았을 때보다 제거율이 50% 높았다고 밝혔다.

- 한겨레 신문

홍콩에서 AI 감염 조류 또 발견

홍콩에서 AI 바이러스에 감염된 죽은 조류들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보건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홍콩 보건당국이 지난 3월 2일 중국 광둥성 근처의 팡차우섬 해안에서 죽은 채로 발견된 닭을 검사한 결과, AI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홍콩 보건당국은 닭이 발견된 곳으로부터 반경 3km 이내에는 가금류를 기르는 농장이 없는 점으로 미뤄 죽은 닭이 바닷물에 휩쓸려

핑차우 섬으로 옮겨졌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홍콩에서는 지난 1월말 이후 지금까지 닭 5마리, 오리 4마리 등 모두 14마리의 숨진 조류에서 H5N1 바이러스가 발견된 바 있다.

- YTN

홍콩·美 과학자들 H5N1 백신 개발

홍콩과 미국 과학자들이 H5N1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에 대한 새로운 백신을 개발했다고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지난 3월 2일 보도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홍콩대학과 미국 국립보건원(NIH)의 과학자들이 H5N1 바이러스의 몇 가지 성분들을 천연두 백신에 주입하는 이른바 '천연두 편승방식'으로 H5N1 백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H5N1 백신개발을 주도한 홍콩대의 매릭 페이지 교수는 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한 결과 새로운 백신은 H5N1 바이러스에 100% 효과가 있음이 입증됐다고 밝혔다.

H5N1 백신 개발에 참여한 홍콩대와 미국 국립보건원 연구팀은 '면역학' 최신호에 H5N1 바이러스의 주요한 5가지 성분을 천연두 백신에 주입하는 방법을 자세히 소개했다. 천연두 백신을 활용한 H5N1 백신은 저렴한 가격으로 간편하게 생산해 낼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페이지 교수는 "새로운 백신은 효과적이고 안전성이 높은데다 가격 또한 저렴하다"면서 "신속하게 대량생산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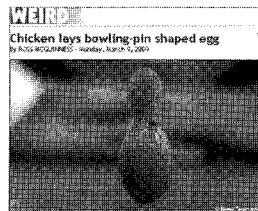
그는 또 "다른 H5N1 백신들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특수한 시설을 갖춘 공장들이 필요하지만 새로운 백신은 간단한 시설을 통해서 생산해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연합뉴스



영국

'볼링핀 닭은 달걀' 화제



영국에서 볼링핀을 연상시키는 형태의 특이한 달걀이 메트로 등 현지언론에 보도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노스햄프셔주에 사는 나탈리 윌트셔(42)는 최근 자신의 20마리 닭들 사이에서 특이한 형태의 달걀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평범한 달걀보다 조금 길고 중간 부분이 가늘어지는 형태로 볼링핀과 꼭 닮았던 것.

세 아이의 엄마인 나탈리는 "달걀에 대한 자료들을 찾아봤지만 이와 같은 달걀에 대해서는 전혀 알 방법이 없었다"면서 "처음에는 이베이(경매사이트)를 통해 팔 생각도 했지만, 아이들의 반대로 그만두고 말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이 얼마나 값이 나갈지는 잘 모르지만 이전에 예수 형상의 시리얼 조각이 매우 비싼 가격에 팔렸던 것은 기억한다”면서 “이제는 다른 9개 핀과 구형 달걀까지 찾아 ‘완전한 세트’로 만들어 보고 싶다”며 웃었다.

- seoul.co.kr.

가 대학 연구소와 수도인 자카르타의 3개 연구소에서 진행 중이다.

- 연합뉴스

독일

올해 첫 H5N1형 AI 발생

인도네시아

AI 연구에 1천660만불 투입

세계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감염자와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은 인도네시아가 AI 진단과 백신 개발에 2천억루피아(약 1천660만달러)를 투입하기로 했다고 관영 안타라 통신이 지난 3월 20일 보도했다.

시티 파달라 수파리 보건장관은 전날 동부 자바의 주도(州都) 수라바야의 아이르랑가 대학에서 열린 국제 AI 심포지엄에서 “AI의 진단과 백신 개발 등을 위해 정부 기금과 외국 지원금 등 모두 2천억루피아를 투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파리 장관은 정부 기금 지원 기준에 맞춰 AI 기금이 각 연구소에 지원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연구 능력을 갖춘 연구소에 선택적으로 기금이 지원될 예정이며 AI 연구를 위한 외국 기금도 우리 정부의 통제하에 지원된다”고 덧붙였다.

인도네시아에서 AI 연구는 현재 아이르랑

을 들어 유럽연합(EU) 역내에서는 처음으로 독일에서 H5N1형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인됐다.

지난 3월 10일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독일 정부가 1월 바이에른주(州)에서 사냥된 35마리의 야생 오리과 4마리의 캐나다 거위의 혈액표본을 조사한 결과, 한 마리의 오리에서 H5N1 바이러스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통보했다.

을 들어 EU 역내의 야생 조류에서 H5N1형 AI 바이러스가 확인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집행위는 설명했다.

EU 역내의 야생 조류에서 H5N1형 AI 바이러스가 마지막으로 검출된 것은 작년 2월 영국에서였으며 가금류에서는 작년 10월 독일에서 H5N1형 AI 바이러스가 확인된 바 있다.

집행위는 그러나 해당 지역의 가금류나 포획된 조류, 야생 조류에 H5N1형 AI 바이러스가 확산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 연합뉴스